



# 극상림의 숲으로 생물 다양성 우수



상원사 가는 길은 월정사를 지나면서 비포장길로 바뀐다. 상원사 주차장에 이르면 계곡을 따라 북대로는 숲길이 나 있다. 이 길은 오대산을 관통해서 흥천으로 넘어가는 비포장 446호 지방도이다. 현재는 자동차 통행을 금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 길을 포장하여 개방하자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도로 자체를 아예 폐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월정사와 상원사 사중에서도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조와 문수동자 전설이 얽힌 관대곶이 옆에 잘 자란 이깔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일반명사로서의 '이깔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두루 일컫지만, 여기서는 백두산이나 개마고원 등 추운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이깔나무(Larix gmelini var)를 가리킨다.

이깔나무는 흔히 낙엽송이라 불리는 일본이깔나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위도상 오대산 아래 지방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이깔나무는 30m 이상 자라고, 가지는 수평이나 아래로 쳐져서 자란다. 귀한 나무인 만큼 상원사에서 나무 아래 안내판을 세우고 종자를 받아서 후계목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상원사를 눈앞에 두고 오른쪽에 위치한 부도전 주변은 상원사에서 가장 양명해서 다양한 꽃들이 자생한다. 여름을 마감하는 동자꽃과 가을을 여는 흰진뽕을 비롯하여 우선처럼 생긴 여러 종류의 산향과 꽃들도 다무어 피어있다.

동자꽃은 문수동자 전설을 연상케 해주는 맑고 청초한 꽃이다. 주로 깊은 산 숲속 양지 바른 곳에 나는 여러해살이 풀꽃이다. 긴 털이 있는 줄기나 겹가지 끝에 주홍색 꽃이 핀다. 사찰 경내에 심어도 훌륭하다.

적멸보궁 뒷밭에 꽃을 피운 당귀는 산향과 초본. 오랫동안 약초로 이용되어 왔는데, 오대산에서도 자생하고 있다.

한편 외래 귀화식물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붉은토끼풀을 비롯하여 달맞이꽃, 돼지풀, 토끼풀, 미국가막사리, 지느러미영경귀, 개마초, 땅초, 풍판지, 서양민들레 등은 상원사 불사 과정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상원사 역사에 걸 맞는 노거수 몇 그루쯤은 있어 주어야 하는데, 넓은 마당에 나무라고는 산돌배나무(P. ussuriensis) 한 그루 뿐이다. 산돌배나무와 들배나무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어렵다. 들배나무는 주로 중부 이남에, 산돌배나무는 중부 이북에 자란다. 가을에 들배가 익을 때, 꺾꽂이가 남아있으면 산돌배이다.

산돌배나무가 지치고 선 마당에 서면 동대와 서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특히 앞산 장령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전나무들이 곳곳에 우람하지만, 월정사처럼 때를 지어 있지는 않다. 저들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곱잡게 자리하고 있다.

오대산은 경사진 곳도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불같은 암봉이나 숨 가쁜 암벽들이 보이지 않는 육산이기 때문이다. 흙살이 도타운 민들레 식생이 다양하다. 식생이 다양하면 출현하는 곤충상도 다양하고 개체수도 많다.

여름 늦바람은 뒤라 다양한 곤충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비와 잠자리는 여러 종류가 관찰되었다. 큰흰줄표범나비, 산제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조원뽕나비, 대만흰나비, 물결나비, 뽕노그늘나비, 애기세줄나비, 황오색나비, 은점표범나비, 작은멋쟁이나비, 큰노랑물결자나방, 팔랑나비류...

큰흰줄표범나비는 날개를 포함한 길이가 7센티를 넘는 큰 나비에 속한다. 담황색 날개에 표범 같은 얼룩무늬가 있다. 산지의 숲 가장자리, 길옆의 밝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숲이 울창한 곳을 좋아한다.

벌당 들개단 위에 유리알처럼하늘소 한 마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누살을 당했다. 개체수가 적어서 관찰이 쉽지 않아 귀한 유리알처럼하늘소는 딱지날개가 유리처럼 반들거린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

해 난 새 가지 끝에 황록색 꽃이 핀다. 거제수나무는 자작나무처럼 줄기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해서 '물자작나무'라고도 한다. 줄기 색깔이 누렇다고 해서 한자로는 '황단목(黃檀木)'이라고도



수 있는 광경이다. 여름과 가을 사이, 날이 촉촉하여 산 중 여기저기 이름 모를 버섯들이 많이 돌아나 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오대산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고등균류(버섯류) 8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노루궁뎅이버섯이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솜털방망이처럼 생긴 버섯이다. 가을에 주로 신갈나무 등 참나무와 활엽수 줄기에 붙어서 자란다. 처음에는 흰색에 가깝지만 나중에 노랗게 변한다.

적멸보궁은 중대에서 다시 10여분 거리. 적멸보궁 가는 길은 불지들과 등산객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뿌리들이 드러난 곳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구간에는 풀을 깔고 간벌목으로 가장자리에 테를 둘렀다. 부적비한 교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적멸보궁은 해발 1200m, 오대산 중봉인 비로봉에서 달려 나온 용이 고개를 쳐든 곳에 신라 자장승사가 중국에서 갖고 온 불사리를 모셨다. 전에 없던 매점과 잔디마당이 생겨서 좀 낯설다. 적멸보궁에서 비로봉(1563m)까지는 1시간 거리이지만, 숲이 가쁘지는 않다.

서대 염불암은 상원사에서 중대사자암 길로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1시간 거리, 계곡을 건너 장령봉 중턱에 있다. 가

는 깊은 길옆의 웃자란 초목들이 길을 가려서 숲속에 감추어져 있다. 게다가 깊은 한 사람만 지날 수 있을 만큼 비좁다. 그래서 이 길은 팽팽한 즐거움이 있다.

오대산은 사람이나 짐승 주변 말고는 거의가 녹지자연도 9등급에 해당한다. 9등급이란 극상림에 해당하는 자연림으로, 남한에서 현실하기로 손꼽을 정도이다. 극상림은 숲의 천이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숲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숲에 들어서자 몇 마리의 박새들이 날카로운 경계음을 내며 길을 비켜주고 있다. 뒷세로는 불지들의 친근한 도반이 되어버린 적멸보궁의 동고비를 비롯해 박새, 곤졸박이, 어치, 멧비둘기, 큰부리 까마귀 등이 관찰되었고, 여름철새로는 흰배지빠귀만 겨우 관찰되었다.

우릉수는 보천고 효령 두 태자가 5만 진신에게 차를 올랐던 바로 그 '동중수(洞中水)' 물이다. 옛 문헌에 우릉수는 물이 무거워 차 달이는 데 찻손에 찼다고 한다. 현재 한강의 발원지는 물이다. 태백 검용소가 지리적 발원지라면, 이곳 우릉수는 역사문화적 발원지이다. 우릉수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 경내 역사에 걸 맞는 노거수 하나 없어 오대산 흡살 도타워 곤충상 개체수 많아 비로전 뒤 군락 형성한 달뿌리풀 '특이'

다. 여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 떨어지면 모습을 감춘다.

관대곶에서 적멸보궁에 이르는 동안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역시 세력은 다양한 활엽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참나무, 옻나무, 거제수나무 등. 몇 종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친질하게 나무표지를 매달아놓았다.

옻나무는 '옻나무'라고도 하는 큰 낙엽활엽수이다. 지름이 1m나 되는 것들도 있다. 잎이 단풍나무잎과 비슷하며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다. 두릅나무와 구별하여 개두릅이라고 하며, 맛이 짭짤해서 산중에서 두릅보다 더 쳐준다. 울

원주생식은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seo.co.kr

한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배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배려로운 원주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깨의 영양 원주생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허미라야 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생식 25,000원 원주생식(1kg) 20,000원 원주생식(2kg) 20,000원 원주생식(5kg)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주)상사 (주)상사 (주)상사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28-3번지 (주)상사 (주)상사 (주)상사 (053) 958-5921 우체국 70334-01-001873 (예금주: 주상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우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인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元·氣·回·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방,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면 어린이는 산삼정액을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확대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친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 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賜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밀 (본식 51160-150)